

## (2021.11.22. 월) 미래가 현재에 지우는 부담(한겨레)

현재의 잘잘못이 유산으로 남아 미래에 혜택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경제 문제에서는 반대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현재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다.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그 예다.

며칠 전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양도소득세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대부분 뒤집겠다는 뜻이다.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신념을 담은 것일 수도 있고,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내놓은 공약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그의 미래 구상이 현재의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고 현재를 결정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감세를 약속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일단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감세보다도 현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규제 완화 약속들이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청년층등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현재 40%에서 80%로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가 공약한 이런 규제 완화가 정말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보다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가 당선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부는 매도를 늦추거나 새로운 매수에 나설 것이다.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에 빌라 매입도 늘 것이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신임 서울시장이 내놓은 유사한 정책 공약이 실제 이런 효과를 냈다.

선거 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선거 직후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주도한 감세 조치도 정책 일관성 훼손에 한몫했다.

지금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있을 줄 알면서도 이것을 선택했다.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 덕분에 부동산 가격은 이제 겨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일부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열심히 펌프질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곧 뒤집겠다고 하고 있으니 구멍을 뚫어 바람을 빼고 있는 격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가 현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많은 국민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큰 좌절에 빠졌다.

올해 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수출을 제외한 내수 경기가 크게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치달는 것을 보면서도 유동성 흡수와 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 회복덕분에 대면 서비스업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구인난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유동성 흡수라는 정책수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소위 정책 시차가 길기 때문이다.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아도 실제 주택은 5년 내지 7년 뒤에나 공급된다.

현재 정책이 미래에 가서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에서도 앞으로의 정책을 예상하고 현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래도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대선 기간에는 지금의 정책을 뒤집는 공약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훼손과 그에 따른 정책효과 감소 문제가 특히 심해진다.

그 부작용의 정치적 부담은 후보의 몫이 아니다.

(2021.11.23. 화) “평생기술일 줄 알았는데…” 카센터 사장님의 ‘투잡’ (한겨레)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무어의 법칙’은 디지털 세상의 속도와 변화의 폭을 규정한다.

약 24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가 된다는 이 법칙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지수함수라는 걸 의미한다.

2년 뒤 2배, 4년 뒤 4배, 6년 뒤 8배로 컴퓨터칩 성능이 증가하니 갈수록 기술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안정적 직업·기술이 이내 기계에 대체되거나 사라질 운명임을 알려준다.

20여년 단골인 동네 카센터가 있다.

평생 자동차를 수리해온 60대의 정비기능장이 운영하는 업체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닫혀 있는 날이 많아, 어느 날 차량 정비를 맡기면서 이유를 물었다.

“요즘 차량 맡기는 손님이 줄어 일주일에 절반은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격일근무로 일하고 있다”는 사장님의 답변이었다.

보일러 관리는 자동차 정비 기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고교시절 차량 정비 기술을 익히면 자동차 대중화 세상에서 가치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과거와 달리 정비 고객이 오히려 줄어 경영난을 겪는다는 게 ‘투잡’의 이유였다.

기술 발달로 고장이 줄었고 최근엔 내연기관 없는 전기차가 보급되는 현실이다.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사례다.

올해 초 카센터에 방문했을 때 사장님은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다.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였다.

---

“보일러실에서 일 하는 게 60대에는 힘에 부쳐요.

---

그런데 옆에 있는 전기실을 보니 업무가 힘들지 않고 나이 들어서도 자격증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

카센터 사장님은 한때 유망하던 자동차 정비를 배웠지만 보일러 수리, 다시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상황에 맞는 기술을 새로 배우고 있었다.

---

한때 도스 명령어를 다루는 능력은 유망한 생계기술이었지만, 윈도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효용성이 사라졌다.

---

정보검색사, 항법사 등도 마찬가지다.

---

해당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자 기계를 통해 자동화되었다.

---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다” 라고 말한다.

---

미래 예측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다.

---

알 수 없는 미래에 무엇이 유망할지를 무한 탐색하기보다 흥미를 갖는 분야에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

---

일단 실무를 접하면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단히 직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카센터 사장님이 모범사례다.

---

## (2021.11.24.수) 이미지의 힘(동아일보)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대중의 관심과 지지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

16세기 영국 왕 헨리 8세도 이미지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다.

17세기에 소실됐는데도, 이 초상화는 가장 유명한 영국 군주의 이미지로 여전히 각인돼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한스 홀바인은 독일 태생이지만 영국의 궁정 화가로 일하며 기념비적인 초상화를 많이 제작했다.



화이트홀궁전 내에 있었던 이 그림은 헨리 8세가 아들 에드워드 6세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속 건장한 왕은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한 채 화면 밖을 응시하고 있다.

두 발을 벌리고 서서 오른손은 장갑을, 왼손은 허리에 찬 단검 줄을 잡고 있다.

금색 커튼이 달린 화려한 인테리어와 보석과 모피로 장식된 의복은 영국 왕실의 부유함을 과시한다.

넓은 어깨에는 두꺼운 패드를 집어넣어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다.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왕의 권위와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군주였다.

왕비를 다섯 번이나 갈아 치운 여성 편력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림의 모델로 섰을 때는 40대 중반으로 실제로는 비만에다 건강이 나빠져 고통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화가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그린 것이었다.

헨리 8세는 이 그림이 꽤 만족스러웠는지 다른 화가들에게 모방하도록 명했다.

다양한 버전을 그리게 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했다.

귀족들은 다른 화가들에게 복제화를 주문해 왕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다.

1698년 화재로 원본이 소실되었어도 이 초상화가 헨리 8세의 강력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상징이 된 것도 바로 수많은 복제화 덕분이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16세기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 1 : 화가는 왕을 있는 그대로 그렸나요? (예, 아니오 중 하나를 괄호 안에 쓰시오)

답 : ( )

질문 2 : 원본 그림이 소실(消失 : 불에 타서 사라짐)되었어도 지금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_\_\_\_\_

질문 3 : 이 글에서 '모방' 과 비슷한 말은? (2글자)

답 : ( )화

질문 4 : 왕의 그림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영국인이었다.(참이면 T, 거짓이면 F 쓰시오)

답 : ( )

질문 5 : 화가가 그린 왕의 초상화를 왕이 만족스러워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글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답 : \_\_\_\_\_

(2021.11.25.목) 46년 만에 노벨상 받은 지구온난화 실험... 과학이 기후 위기 막는다(조선일보)

지난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작금의 기후 위기에 대해 다소 진전된 합의문을 채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석탄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석탄화력 발전 '중단' 이 아니라 '감축' 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197국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인 것은 틀림없다.

왜 하필 석탄인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40%가 석탄연소를 통해 배출된다.

무엇보다 석탄화력 발전이 문제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석탄화력 발전은 전 세계 곳곳에서 주요 전력 생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확장 일로에 있다.

향후 건설이 확정된 발전소만 해도 1721기에 달한다.

이 발전소가 모두 운용된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보다 적어도 4도 이상 전 지구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만약 계획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백지화한다면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

글래스고 합의안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 인도에 달려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53%를 차지한다.

인도의 석탄 소비량도 전 세계 11%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

지나치게 석탄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감축이 쉽지 않다.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대신 감축하기로 합의문이 약화된 것도 실상 중국과 인도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도 적지 않다.

석탄 연소를 통한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본다면, 전 세계 배출량의 2%를 차지한다.

적어 보이지만 전 세계 8위에 해당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더디지만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과학자들의 기여는 결정적이었다.

지구온난화가 신화가 아니라 현실임을 증명했고, 온난화가 가속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난들을 과학적으로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상식이지만, 사실 온난화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60~1970년대만 해도 기후변화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

1970년대에는 곧 빙하기가 올지 모른다는 신문 기사나 보고서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만 지구온난화의 가능성과 위험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75년 미국 기상학회지에는 기념비적인 논문이 출판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에서 600ppm으로 증가하면(현재 414ppm) 어떤 일이 생길지 추정하는 논문이었다.

3차원기후 모형을 이용한 최초의 지구온난화 실험이었다.

기후 모형은 대기와 해양의 물리 과정을 표현한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논문에서는 1960년대 말 개발된 매우 단순한 기후 모형을 사용했다.

당시 컴퓨터 성능의 한계를 고려해, 지구를 대륙과 해양으로 단순히 이분하고 산맥과 해류는 무시했다.

온실 기체는 수증기, 오존 그리고 이산화탄소만 고려했다.

심지어 구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기후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2배로 증가하면 지표부터 대류권 전반에 걸쳐 기온이 상승하고, 북극은 급격히 따뜻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대류권과 달리 성층권(고도 18km 이상)의 기온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놀랍게도 지난 50년간 기후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당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연구는, 46년이 흐른 2021년에야 기념비적인 연구로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논문의 주 저자 “마나베 슈쿠로”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다.

정통 기상학을 전공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한 것이다.

구순(90살)의 연구자는 ‘단지 호기심을 채우는 연구를 했을 뿐’ 이라고 회고했지만, 빙하기가 가심거리였던 시절에 3차원 기후 모형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구온난화 실험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마나베 박사가 개발한 기후 모형은 1980년대 슈퍼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각국은 보다 정확한 고해상도 기후 모형 개발에 나섰다.

덕분에 이제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혹은 비가 얼마나 내릴지를 넘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대기과 바다 그리고 나무를 통해 순환하는지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기후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포부와 달리 그리고 IT 선진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아직 독자적인 기후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대응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후 모형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국 모형을 일부 수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른 나라 기후 모형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기후 모형은 이제 과학적인 틀을 넘어, 기후 위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후 모형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다행히도 개발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상청은 일기예보에 사용되는 수치 모형인 KIM을 확보하고 있다.

KIM은 날씨를 예측하는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를 확장 발전시킨다면 수년 내에 충분히 기후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계획은 과학적 이해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아마도 복합적인 관측과 독자적인 기후 모형의 확보일 것이다.



전 세계 연료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

## (2021.11.26.금) 놀 권리(경향신문)

“하루를 잘 논 아이는 짜증을 모르고, 10년을 잘 논 아이는 마음이 건강하다.

음식을 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놀이밥’도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편해문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중)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 자체다.

놀지 못하면 병든다는 것을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먼저 안다.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놀 권리’는 아동협약에도 일찌감치 주요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에게 놀이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복지권’이라고 규정한다.

방정환 선생도 1923년 ‘어린이날 선언’을 발표하며 어른과 어린이를 동등한 주체로 대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놀이터 등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988년)이나 어린이놀이헌장(2015)에도 이런 취지가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놀이행동전문가인 스투어트 브라운은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우울’이라고 했다.

제대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울한 어른이 되고, 나아가 우울한 사회를 만든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자신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알려진 후 비난이 일자 다른 주민들이 대표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어쩌다 아이들이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일까지 신고를 하게 됐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동네 아이들이 왁자지껄 뛰어놀던 골목과 공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젠 아파트 놀이터도 자기 아이들만 놀게 하자고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가뜩이나 공부로 놀 시간과 놀 친구들을 빼앗긴 아이들이 한 줌 남은 놀이터에서도 내몰리고 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놀이를 복원하고 또 놀 기운을 북돋아줘야 한다.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놀이 시간, 친구들을 돌려줘야 한다.

고급주택가든 서민들이 사는 동네든, 아파트든, 빌라든 아이들이 놀 공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아이들이 없어지는 사회에선 이런 논의 자체가 사치가 된다.

— 청원진행중 —

##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 게 잡혀갔어요

참여인원: [ 7,652명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시작 2021-11-04

청원마감 2021-12-04

청원인 kakao-\*\*\*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답변완료

### 청원내용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얼마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보너스 읽기₩ 11월 11일 11시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할 건가요?(조선일보)

11월 11일이라고 하면 연인들을 위한 '빼빼로 데이' 로만 여긴다.

하지만 이날이 그 초코 스틱의 달콤함에 가려진 의미심장한 날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매년 이날이 되면 6·25 전쟁 참전 22국 195만명 중 살아있는 용사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부산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하고 1분간 묵념을 한다.

이른바 '부산을 향하여' 라는 6·25 참전 유엔군 추모 행사 날이다.

캐나다 참전 용사 빈센트 커트니(92)씨가 2007년 제안해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2311명의 전몰장병이 안장돼 있는 부산 유엔 기념 공원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하게 됐다.

2008년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는 연례 행사로 열고 있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 영연방의 1·2차 대전 전사자 추도일, 미국의 '재향 군인의 날' 이기도 하다.

6·25 참전국은 22국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16국은 전투를 지원했고, 노르웨이·덴마크 등 6국은 의료를 지원했다. 전사자·실종자 4만896명과 부상자·포로 등을 포함해 피해자 숫자가 15만5000여 명에 달했다.

부산 유엔 기념 공원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유엔군 묘지로, 11국 2311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으며, 유엔 관할 지역으로 돼 있다. 한국 국회는 1955년 유엔군 희생에 보답하고자 현재의 토지를 기증했고, 같은 해 유엔은 이 묘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행사는 영국군 무명용사 3명의 유해 안장식에 이어 유엔 전몰장병 추모 명비 앞 추도식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에 안장되는 영국군 3명의 유해는 2016 ~ 2017년 파주 일대에서 발굴됐으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채 국적만 밝혀졌다.

안장식에 뿌려지는 흙으로는 지난 70년 동안 그들이 묻혀 있었던 파주의 흙이 사용된다.

추모식에선 전사자와 실종자 숫자를 상징하는 4만896송이의 달맞이꽃을 헌화한다.

한국 들녘에서 자생하는 달맞이꽃의 꽃말은 '기다림'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모든 전몰장병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다.

올해 행사에는 '부산을 향하여'를 제창했던 빈센트 커트니 씨도 참석해 전우에게 바치는 시 '소중한 청춘의 나날'을 낭독한다.

커트니 씨는 3년 전에 한 기고문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부산을 향하여 있을 테니 한국도 부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었다.

